▶▶ 매일 INDEX

3면
완주 수소 실리콘밸리 조성 '맞손'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음 5월 27일) 제330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가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 할 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1차 회의

김관영 도지사, "더 많은 도전의 기회 달라" 촉구
한덕수 총리 "특성 맞는 탄력적 제도 재설계 필요"
도, 지원위 힘 바탕으로 부처 협의 등 적극 추진

김관영 도지사(사진 오른쪽)는 13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비롯한 지원위 위원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전의 기회를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 1차 회의에서 '권한보다는 기회'를 달라며 국가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전의 기회를 촉구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지난 4월 18일 가동되어 전북과 국조실이 꼼꼼히 준비해온 지원위는 3개월여 만에 1차 회의라는 결실을 맺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18개 부처 장차관, 10명의 민간위원, 도지사로 구성된 지원위 위원 30인 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원을 위해 전북도청을 찾았다. 회의는 위원장(총리)의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북이 그동안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곡창지대 역할을 오랜 기간 담당하며 식량주권을 책임져 왔지만,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전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다"며, "정부 각 부처가 각종 제도나 법령으로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북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위원들의 지원 사격도 잇따랐다. 투자유치, 교육, 자치분권, 문화관광, 농생명, 도시개발, 산림환경 등 8개 분야 10명의 위원들은 전북의 특별한 발전 전략에 대해 공감하며 전북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후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민간위원 등 지원위 위원들이 전북 스마트 농업의 대표 사례로 꼽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청년농업인 7명은 스마트팜을 방문한 지원위 위원들을 환영하며 사회적 기반이 약한 청년 농업인들이 경영 안정을 찾아 농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영농 정착 지원과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을 적극 건의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미래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주역은 청년농업인 여러분이다"며, "정부도 청년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의 스마트팜 임대 대상, 임대 기간 관련 특례가 포함돼 있다.

김관영 지사는 "부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지원위가 열려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든든하다"며, "지원위를 시작으로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총리님의 말씀처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전북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전의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6월 30일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 추진을 위해 국 단위 3개 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이번 지원위에서 얻은 힘을 바탕으로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김재훈 기자

석재 우수성 · 예술성 드높인다

익산서 '석재문화 체험관' 개관… 체험장 · 시연장 등 갖춰

13일 익산시 황등면 석재단지길 내 '석재문화 체험관' 개관식이 열린 가운데,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수흥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익산시가 석재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드높이고 부흥을 위한 석재문화 체험관의 문을 활짝 열었다.

시는 13일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석재문화 체험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시장을 비롯해 최종오 시의장, 김수흥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석재산업 관련 단체 및 시민 등 20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체험관'은 석제품 전시 홍보관(황등면 석재단지길 10)내에 위치해 있으며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300.69㎡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은 석재전시실과 석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 석재작품 제작을 지켜볼 수 있는 시연장 등이다.

또한 석제품 전시 홍보관에서는 익산 석재산업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소개하고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석재모형과 제품, 석재 발전사 등 전시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체험관은 이번 개관을 기념해 13일 석조각 기획전을 시작으로 나만의 도장만들기, 나는야 석공, 행복한 우리가족 그리기 등 다양한 돌새김·돌그림 체험프로그램 및 석조각 시연공연 등을 펼친다.

/익산=이재춘 기자

"여행 중 손씻기 익힌 음식 섭취를"

도,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철인 만큼 전년 대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은 모기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인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 메르스 등이 있다.

이에 도는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전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콜센터(☎1339)를 통해 검역 관리지역,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현황, 권장 백신·예방 정보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73개국(아시아·중동 22개국, 아프리카 37개국, 아메리카 14개국)의 검역 관리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인 손씻기, 안전한 식수와 익힌 음식 섭취, 야생동물 접촉 주의, 모기 기피제 사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역 관리지역 방문 후 대한민국을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는 국적과 체류 목적에 관계없이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활용해 신속·편리하게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입국 전 시스템에 접속해 입국 및 체류 정보·건강 상태를 사전 입력하고 QR 코드 발급 후 검역 심사 시 QR 코드를 제시하면 검역이 완료된다. 이를 통해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 효과는 유지하면서 해외 입국자의 장시간 대기는 최소화할 수 있다.

이승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검역 관리지역 방문 후 발열·설사같은 증상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에 신고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며, "도민들께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 건강 상태 체크, 출국 2주 전 방문 국가별 감염병 예방접종, 예방물품 지참 등의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